

## 세계가 놀랐다 한국 디지털기술 최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9일 폐막된 '2005 세계가전쇼(CES)'는 올 한해 디지털가전의 흐름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세계 110여개국 2,40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쇼는 참관객 수만 13만여명이 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지난해 CES의 주제가 '디지털 컨버전스(융·복합)'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쇼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크기, 용량을 지닌 첨단 컨버전스 제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특히 초대형·고화질 디스플레이 제품들과 각종 기능이 복합된 휴대전화 제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으며, 한국 업체들의 위상 강화도 이번 쇼의 특징이었다.

글\_권경희 기자 · 사진\_이혜성 기자

**최** 첨단 디지털 전자기술 경영장인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05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9일 성황리에 폐막됐다.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IT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CES에는 12만여명의 참관객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고자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찾았고,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이 단연 전시회 꽃으로 부각돼 주목받았다.

빌 게이츠 MS 회장을 비롯한 업계 유명인사들이 아이리버·삼성전자·LG전자 등의 제품을 훌륭한 제품으로 소개해 국내업체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렸다. 또 국내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수백 개 부스에서 국내 제품을 전시해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CES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아이리버 H10'을 들고 나와 소개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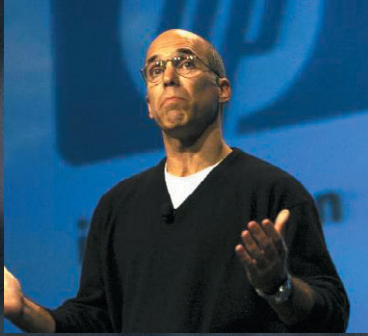
해 전 세계로 전송되면서 한국의 MP3플레이어 대표주자인 레인콤이 이번 행사의 수혜자로 떠올랐다. 이에 해의 MP3플레이어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레인콤의 '아이리버 H10'이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MS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애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플레이 포 슈어(Play for sure)'라는 컨소시엄을 발표하면서 반 애플진영의 전면에 레인콤의 '아이리버 H10'을 내세웠다.

전체적으로 출품된 제품을 살펴보면 올해 CES에는 기존 제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융·복합화 양상을 보이면서 새로운 가전시장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까지 시나리오 속에서만 등장하던 '디지털홈' 전략이 제품으로 구체화돼 가능한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게리 사피로 미국가전협회(CEA) 회장은 "디지털홈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며 "앞으로 가전시장에서 통합될 수 있는 기능은 모든 게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계 가전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CES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시회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기업 없이 세계 전시 없다

이번 쇼는 '한국 기업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삼성전자는 2,500여개 참가 업체 중 최대 크기인 697평의 전시장을 마련했으며, LG전자도 올해 부스 크기를 지난해의 2배로 늘려 세 번째 규모를 자랑했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제품 외에도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수신기와 메가픽셀폰 등을, LG전자는 무선LCD TV, 블루투스폰, 3D게임폰 등을 내놓아 인기를 끌었다.

디지털가전부터 휴대폰, 컴퓨터까지 내놓은 업체는 소니와 파나소닉, 삼성과 LG전자 뿐이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3개와 16개의 제품혁신상을 받아 1,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레인콤 등 MP3플레

이어와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등을 내놓은 국내 중소기업들도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오동진 삼성전자 북미총괄 부사장은 "북미 시장에서 삼성 제품이 고 품질의 고급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명문대생들의 입학요청도 줄을 잇는 등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홈네트워크 제품에 적용할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 '하이웨이브' (HiWAVE)도 최초로 공개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종전보다 2배 이상 빠른 60Mbps로 2개 이상의 HD급 동영상을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다.

올해 부스 크기를 2배로 늘린 LG전자는 71인치 PDP TV와 55인치 LCD TV, 50인치 DCR 탑재 PDP TV를 비롯한 42~71인치 PDP TV, 32인치 슈퍼슬림 TV, 15인치 무선 LCDTV 등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이번 CES를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노트북 브랜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다양한 노트북 제품을





1



4



2



3

- 1 삼성전자가 선보인 세계 최대크기의 102인치 PDP TV에 외국인들인 감탄하고 있다.
- 2 삼성 최지성 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3 LG 이희국 사장(왼쪽)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마이클 파월 위원장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4 칼리 피오리나 HP회장이 'CES'에서 기조연설을 펼치고 있다.

내놓고, 지상파 및 위성 DMB폰을 비롯한 3세대 WCDMA 단말기, 슬라이드형 EDGE폰, 블루투스폰, 3D 게임폰, 유무선 연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폰도 전시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PDP TV, LCD TV, DVD 리코더와 차량용 디지털 AV 제품을 대거 출시했고, 차세대 홈네트워크 기술을 응용한 IPTV, 음성필터링 DTV, 초슬림 DVD리코더, 휴대용 DVD플레이어, 모바일 DVR도 선보였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김충훈 사장은 지난달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가전업체로서의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글로벌 톱10 기업 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프는 65인치 LCD TV를 선보였으며,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70인치 DLP TV를 내놓아 각 분야 선두업체로서의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MS와 인텔, HP 등은 가전과 엔터테인먼트, 컴퓨터의 접목을 주제로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윈도 미디어센터 2005 에디션'을 소개했다. 엔터테인먼트 PC와 게임기, TV 등을 연계한 홈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이다. 빌 게이츠 회장은 "인류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P는 가정용 디지털기기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장치 및 TV와 TV프로젝터, 셋톱박스 등을 선보였다. PC에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을 TV로 재생할 수 있다. 인텔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지원하는 듀얼 코어 칩을 내놨다. ●

### 디스플레이 대전(大戰)

이번 쇼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디지털TV 등 디스플레이 제품이었다. 지난해까지는 40인치대가 주종을 이뤘으나 올해 쇼에서는 50인치 이상 대형 제품이 대거 선보여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먼저 삼성전자가 내놓은 세계 최대인 102인치 PDP TV 앞에는 관람객과 취재진이 끊이지 않았다. 양산 제품으로는 최대 크기인 LG전자의 71인치 PDP TV도 눈길을 끌었으며, 파나소닉 후지쓰 소니 파이오니아 히다치 등 일본 업체들도 55~65인치의 PDP TV를 선보였다. 일본 사